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제휴?: 시리아 내전 개입의 의도를 중심으로*

강 봉 구**

- 개요 -

대다수 연구들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긴밀한 협력은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부합에 따른 “일시적인 동반자 관계 혹은 필요에 따른 협력”이며, “제한적이며 정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상기 관점은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해관계, 근대 국제규범에 대한 보수적 입장 및 상보적인 경제적 유대 관계 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논문은, 양국이 시리아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의도에 근거하여, 이전의 사례들과는 달리 러시아의 대 서방 관계 개선 혹은 개선 의도에 따라 러시아-이란 양국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며, ‘일시적인 파트너십’ 보다는 좀 더 긴 시간에 걸쳐 전략적 제휴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 주요 동력으로는, 세계·지역 정치에서 양국의 지전략적 계산, 특히 각국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에 대해 갖는 지정학적 이익이 서로 부합하고, 또 양국은 추구하는 가치(권위주의 및 주요 국제규범에 대한 보수주의적 시각) 및 비서방적 정체성 등을 대체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제 어: 러시아, 이란, 시리아 내전, 아사드 정권, 전략적 제휴, 전략적 협력

* 유익한 논평으로 이 글의 수정·보완에 도움을 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1. 서론

시리아 내전 사태(2011년 5월~)가 5년을 넘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¹⁾ 러시아의 투폴레프 장거리 전략폭격기(TU-22M3)와 수호이 공습 전투기(Su-34)가 2016년 8월 이란 북서부의 샤히드 노제(Shahid Nojeh) 공군기지에서 출격하여 폭격을 수행하였다.²⁾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1979년 이래, 테헤란이 자국 영토를 이용하여 외국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중동의 신정국가와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계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또, 2000년대 초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아온³⁾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2015년 7월 P5+1과 이란 간 합의가 도출되어 핵문제 타결의 틀, ‘포괄적합동행동계획(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이 수립되었다.⁴⁾ 이와 함께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주요 서방 국가들이 이란과 경제협력을 시동하는 가운데, 특히 부셰르(Busher) 원전 건설 등 이란과 협력관계를 지속해 왔던 러시아의 다각적인 경험 본격화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가입 권유 등은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모멘텀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유라시아대륙의 최

- 1) 2011년 3월 15일 시리아의 주요 도시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후,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과잉 유혈 진압을 시작하였다. 5월경부터는 시위대(반정부군)와 정부군과의 무장 충돌로 격화되어 내전 상태로 돌입한다. 정상률(2014)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중동 국제관계 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4:2, 243-252쪽 참조.
- 2) “Iran Says Russia Only Using Air Base for Refueling”(2016), *RFE/RL*, 2016.8.18, 러시아는 이미 2015년 11월 이후 수니파 극단 이슬람주의 세력, 이슬람국가(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Greater Syria: ISIS)와 싸운다는 명분으로 샤히드 노제 공군 기지를 이용해 왔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러시아의 수호이 Su-34 공습기와 Il-76 수송기가 동 기지에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Matt Finucane(2016b) “The Hamadan Incident: Russian Airstrikes from Iran, Now up in the Air,” *Russia Direct*, 2016.8.26, p. 2.
- 3) 2002년 8월, 약 9천개의 원심 분리기를 운용해 온 나탄즈(Natanz) 소재 우라늄 농축시설의 미신고 사실이 폭로된 이후 이란 핵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테헤란의 해명과는 달리,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원료 확보용이라는 의심을 받아왔다.
- 4) Daril G. Kimball and Kelsey Davenport(2015) “P5+1 Nations and Iran Reach Historic Nuclear Deal,” *Arms Control Association*, 2015.7.14.

대 지역 안보협력기구 SCO의 주도국인 러시아는 2015년 SCO 우파 정상회의에 이어 2016년 SCO 타쉬켄트 정상회의에서도 이란의 가입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입장을 표명하였다.⁵⁾

이처럼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관계가 전략적 제휴의 징후들을 보이자, 양국 관계의 성격과 진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논평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방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을 중국과 함께 반서방적 권위주의 성격을 가진, 현존 세계질서에 대한 대표적인 수정주의 국가 그룹으로 간주해⁶⁾ 왔기 때문에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지정학적 접근에 대한 해석은 더욱 논쟁적 관심을 제고하였다. 대다수 연구들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 지정학적 외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일시적 부합에 따른 “편의상의 결혼(the marriage as one of convenience)”,⁷⁾ “일시적인 동반자 관계 혹은 필요에 따른 협력(a temporary partnership or a cooperation of necessity)”,⁸⁾ 혹은 “단기간의 ‘전술적 동맹’에 불과한 것”⁹⁾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협력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Bashar al-Assad, 이하 아사드) 정권 유지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견제라는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군사적 개입의 동기과 목표가 상이하기에 또, 정치군사적 동맹으로의 발전은 동맹의 의무를 부과하며 제3국과의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에,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며 정황적인(limited and situational)”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¹⁰⁾

5) 모스크바의 입장은 타쉬켄트 SCO정상회의에서 이란의 SCO 가입절차를 지체 없이 시작하기를 원했지만 중국을 비롯한 다른 성원국들은 이 요청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 절차 완료 이후에 이란의 가입 문제가 이 기구의 의제에 상정될 수 있다고 본다. “SCO to Consider Iran’s Accession after India, Pakistan”(2016), *Sputnik*, 2016.5.25, https://in.rbth.com/world/2016/05/25/sco-to-consider-irans-accession-after-india-pakistan_597107(검색일: 2016.09.25).

6) Walter R. Mead(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7) Michael Rubin(2016) “Iran-Russia Relations,” *Operational Environment Watch, AEI*, 2016.7.1, p. 12.

8) Alexey Khlevnikov(2016) “What Iran Thinks about Russia’s Role in the Middle East,” *Russia Direct*, 2016.5.6, p. 2.

9) Bozorgmehr Sharafedin and Lidia Kelly(2016) “Iran and Russia Move Closer but Their Alliance Has Limits,” *Reuters*, 2016.4.26.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측에서는, 시리아 내전에서 양자간 군사협력의 강화를 편의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이해관계 그리고 양국의 상호적인 경제적 유대 관계 등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¹¹⁾ 또 현재 러시아가 처한 필사적 상황 그리고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대외정책에 대한 실용적 접근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반박한다.¹²⁾

이같은 서방의 압박, 반군 및 ISIS에 밀리고 있던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 온 러시아와 이란의 직접적 군사개입의 의도를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군사적 외교적 협력이 편의에 따른 일시적 동반자관계에 그칠 것인지 혹은 좀 더 긴 시간에 걸쳐 전략적 제휴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이란의 대외정책에서 양자의 상호위상 및 전략적 협력의 배경을 살펴보고, 3장에서 시리아 내전에 직접 개입한 양국의 의도를 분석한 후, 4장에서 양국 파트너십의 진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5장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2.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협력 배경

2.1.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이란의 위상

지난 4반세기 동안 러시아 대외정책의 관심 방향들 가운데 우선순위는 주로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관계, 서방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에 두어졌다. 그렇다면 중동지역은 러시아 외교에서 어떤 의미와 비중을 갖고 있을까? 중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지중해와 소아시아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인접해 있다. 유럽으로 몰려드는 시리아 난민 사태에서 보듯이, 중동의 국제정세

10) Nikolay Kozhanov(2016) "Marriage of Convenience," *Russia in Global Affairs*, 2016.6.17.

11) Sergey Aleksashenko(2015) "Russia and Iran: Past Is not Necessarily Prologue," *Brookings Institution*, 2015.11.19.

12) Matt Finucane(2016a) "The Beginning of a Russian-Iranian Alliance," *Russia Direct*, 2016.7.19, p. 1.

는 유럽의 안보와 안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동의 북쪽에 위치한 이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은 남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하여 모스크바가 자신의 전통적 영향권역으로 간주하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안정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스크바에게 중동지역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안보에 직접 연관되는 지역이며, 대서방 관계에서는 중동지역의 문제를 통해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가 추구해 온 대외정책의 목표는 소련 붕괴 이후의 총체적 국력의 약화와 대외적 위상 저하 추세를 반영하여 유라시아지역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유지하는 데 있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적인 방책은 발트3국을 제외한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이와 접경한 지역들에서 제기되는 위협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외교력과 군사력의 투사 능력이 허용하는 만큼, 서방 특히 미국의 힘을 견제하면서 인접 지역들에서의 영향력도 확장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도 모스크바가 자신의 지정학적 계산과 연관된 두 가지 핵심 의도를 반영하여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 먼저, 모스크바는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ISIS를 비롯한 극단 이슬람주의의 침투를 차단하고 중앙아시아와 남 코카서스 국경지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란의 역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¹³⁾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남방에 위치한 두 지역의 남쪽 국경지대가 위협받지 않도록 이란이 안정되고 우호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남기를 희망한다. 다음으로, 모스크바는 세계정치 및 중동지역 정치 수준에서 테헤란과의 관계를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동시에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사안은 자신의 운신의 여지를 넓히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¹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양국은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더 많았던 것이 첫째 이유이며, 둘째는, 러시아와 이슬람 신정국가 이란은 이념적 유사성이 희박하고 역사적 친근성과 상호 신뢰가 낮은 편이지만,¹⁵⁾ 미국을 위시한 서방 주도의 세계질서, 그것을 뒷받침

13) Andrej Kreutz(2010) "Syria: Russia's Best Asset in the Middle East," *Russie. Nei.Visions* 55, Russia/NIS Center, November, pp. 5-6.

14) Mariya Y. Omelicheva(2012) "Russia's Foreign Policy toward Iran: A Critical Geopolitics Perspective," *Journal of Balkan and Near Eastern Studies* 14:3, pp. 338-341.

하는 서방적 가치(관)의 우위 주장과 강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같이해 왔기 때문이다.¹⁶⁾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의 이념적 슬로건으로 제시되는 ‘보편적 인권’과 ‘보호의 책임’,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 원칙에 맞서 근대국민국가체제의 핵심 규범인 주권 불가침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대해 보수주의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¹⁷⁾ 특히, 러시아가 2000년 대 중반 이후, ‘주권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비서방적’ 정체성을¹⁸⁾ 강화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며, “주권적 강대국 정체성(the identity of a sovereign great power)”에 기초한 자신의 새로운 지정학 코드(geopolitics code)에도 반영된다.¹⁹⁾

모스크바의 입장에서 볼 때, 이란의 지정학적 위상의 비중, 비서방적 가치의 공유 외에도 소련 붕괴 이후 이란의 외교 행보는 러시아에게 비적대적이거나 우호적이었던 점에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1990년대 러시아의 국내적 불안정 및 대외적 위축기에 이란은 포스트소비에트 권력 공백 지역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 침투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터키의 행태와 구별되는 점이다. 또한 1999년 이란은 러시아의 제2차 체르냐 전쟁 시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였으며, 또 당시 ‘이슬람회의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친러적 결의안을 채택하여 러시아와 아랍국가들간 긴장을 완화하였던 적도 있다.²⁰⁾ 물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이란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은 아니지만, 상술한 것처럼 모스크바에게는 소련 시기부터

15) Bozorgmehr Sharafedin and Lidia Kelly(2016).

16) 냉전의 쇠퇴 이후, 과거 동서 진영을 나누는 기준이었던 이데올로기를 대신하게 된 ‘국가(국민) 정체성’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가치(관)’의 공유가 국가간 관계를 구획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17) Walter. R. Mead(2014); Stephen Aris and Aglaya Snetkov(2013) “Global Alternative, Regional Stability and Common Cause: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est,”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4:2, pp. 208-213.

18) 모스크바가 국가주도의 경제운영 방식과 ‘주권민주주의’를 독자적 발전모델의 주요요소로 채택하면서 러시아의 비서방적 정체성은 현재화되고 공고화되어 나간다.

19) Mariya Y. Omelicheva(2012), 333-335.

20) Nikolay Kozhanov(2015) “Understanding the Revitalization of Russian-Iranian Relations,” Carnegie Moscow Center, p. 8.

지속되어 온 중동지역의 전통적 영향력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지역의 주요 행위자인 이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객관적인 요인들은 존재하였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지역 국가들에서의 사태 전개 특히 시리아 내전의 발발과 장기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대립 구도 지속 등으로 인해 모스크바는 이란의 전략적 비중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 및 세계정치에서 모스크바의 계산은 단순하지가 않다. 한편으로, 모스크바에게 이란은 지정학적 이용가치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와 이란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는 자신의 대 서방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수니파 아랍 국가들 및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는 운신의 여지를 좁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방의 대러 제재조치의 지속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전선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테헤란과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2. 이란의 대외정책에서 러시아의 위상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불신은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유럽 제국주의 세력간 각축이 치열하던 19세기에 짜르 군대의 침략을 막지 못한 이란은 1828년 러시아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인 투르크만차이조약(the Treaty of Turkmenchay)을 맺었으며,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이란인들의 러시아에 대한 굴욕과 원한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²¹⁾ 1907년 이란의 입헌 혁명 성공 이후에도 러시아는 이 제도의 운용을 방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영국과 함께 이란의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이란의 북부를 자신의 영향권역으로 확정하였다. 2차대전 당시 소련은 유전과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다시 이란 영토를 점령하였으며, 전후 영국이 물러난 뒤에도 떠나기를 거부하여 이란인들에게 과거의 나쁜 기억을 다시 상기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원한과 박탈감이 오늘날에도 러시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주중 이란 대사, 알리 호람(A. Khorram)은 “러시아인들은 이란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을 때에만 선린이며,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순간, 그들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대한 자신들의 공약에 등을 돌릴 것”²²⁾이라고 경계한다.

21) Matt Finucane(2016a), 1-2.

22) Michael Rubin(2016), 9.

1979년 혁명과 신정국가 성립 이후 양국간의 이데올로기적 이질성 그리고 동·서 ‘제국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독자적 발전모델을 고집한 테헤란의 자주노선 등으로 인해 이란과 소련 사이에는 거리감이 존재하였다. 이란이 러시아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제1의 적대국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로서 소련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라프산자니(H. Rafsanjani) 대통령(1989~1997년)은 주변국 및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에 치중한 반면, 1990년 대 체제전환의 혼란기 러시아는 국내문제와 대서방 관계에 주력하느라 양국의 상호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독일의 지멘스사가 착공(1975년 1월)하였다가 1979년 중단한 이란의 부셰르 원전 사업을 1995년 러시아가 인수하여 추진하면서 양국간 핵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시작되어 양국관계의 끈을 이어 나갔다. 개혁 지향의 하타미(M. Khatami) 대통령 시기(1997~2005년) 테헤란의 대강대국 외교에서 초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보다는 미국과의 경제 정치 관계를 재개하는 데 두어지긴 하였으나,²³⁾ 이란과 러시아 관계도 경시된 것은 아니었다. 양국관계는 상호 실용적 접근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일례로 2000년 말 러시아 정부는 대이란 무기 수출 재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언급에서 드러난 바대로 대미관계 개선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과²⁴⁾ 함께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는 나름의 모멘텀을 갖게 되었다.²⁵⁾ 하타미 정부에서 SCO 옵저버 자격을 획득한(2005년 6월)한 이란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2005년 8월 취임) 시기에 핵연료 농축활동 재개를 이유로 한 서방의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극복하고자 유라시아 대륙에서 비(때로는 반)서방 정체성을 대변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력기구인 SCO의 정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해 가입을 적극 추진하였다.²⁶⁾ 모스크바는 이란의 SCO 가입에

23) Adam Tarock(2002) “The Struggle for Reform in Iran,” *New Political Science* 24:3, pp. 461-463.

24) Adam Tarock(2002), 465-467.

25) “Friends by Default”(2001), *The Economist*, 2001.3.10.

26) 당시 테헤란은 중국, 러시아, 이란 간에 지전략적 이해관계가 부합하며, SCO은 그것을 증진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2008년과 2010년에 적극적으로 SCO 가입을 시도하였던 바 있다. Shahram Akbarzadeh(2015) “Iran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deology and Realpolitik in Iranian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9:1, pp. 92-93.

대해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로 찬성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 이 시기에 러시아는 서방의 이란 제재에 동의하기는 하였지만, 제재 강도의 완화와 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2013년 8월 취임한 로우하니(Rouhani) 대통령은 전임자의 접근법과 비교하면, 좀 더 ‘중도적·실용적 아젠다(centrist-pragmatic agenda)’²⁷⁾를 추구하는 데로 기울어져 있다. 핵프로그램 추구보다는 경제회복을 통한 주민들의 복지 제고를 우선시하고, 대외관계에서는 이에 도움이 되도록 서방과 관계개선 및 지역 갈등 완화 등을 약속하였다. 이처럼 덜 대립적이며 협력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서방에서 이란이 비춰지는 적대적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²⁸⁾ 로우하니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서방 화해 정책은 이전 정권에 비해 이란에게 서방 강대국들에 대한 외교의 선택지를 넓혀주고 있다. 동시에 대미, 대유럽 외교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언제라도 러시아 카드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2015년 7월 핵문제 합의 이후 이란과 EU 및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될수록 테헤란에게 모스크바의 비중은 저하될 것이기에, 모스크바는 이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2014년 3월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대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대미 관계 개선은 모스크바의 중동 전략에 배가된 타격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이것은 모스크바의 지정학적 외교적 입지 축소뿐만 아니라, 카스피해 인접 국가들의 천연가스 수출 경로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러시아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불리한 정세의 전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푸틴 대통령은 2010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내린 대이란 S-300 미사일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2015년 4월) 다시 동 무기체계의 인도를 진행하였다(2016년 10월 최종 인도 완료 함).³⁰⁾ 그리고 2016년 1월, 모스크바와 테헤란은 훈련과 반테러전에 관련한

27) Mahmood Monshipouri and Manochehr Dorraj(2013) “Iran’s Foreign Policy: A Shifting Strategic Landscape,” *Middle East Policy Council* 20:4, p. 1.

28) Rodger Shanahan(2015) “Iranian Foreign Policy under Rouhani,” Analysis, Lowy Institute, February.

29) 러시아가 처한 국제적 정황이 이처럼 어려워지기 전에도, 러시아의 한 외교관은 “친미적 이란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Mark N. Katz(2010, updated as of August 2015) “Iran and Russia,” *The Iran Prim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ttp://iranprimer.usip.org/resource/iran-and-russia>(검색일: 2016.09.25), p. 4.

30) Brendan McGarry(2016) “Russia Finishes Delivery of S-300 Missile System to

폭넓은 협력에 초점을 둔 군사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³¹⁾ 특히, 모스크바는, 시리아 내전의 발발과 반군의 세력 증대 이후부터 테헤란이 전력을 다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 아사드 정권 지지를 위해 직접적 군사개입을 감행하였으며, 친아사드 연합세력으로서 모스크바는 테헤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습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이란의 대외정책에서 상대국의 위상 및 개략한 양국 관계의 큰 흐름을 배경으로 하여 다음 장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의 시리아 내전 개입의 의도를 분석한다.

3. 러시아와 이란의 시리아 내전 개입 의도

시리아 내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정부군, 반군, ISIS 세력 등이 전쟁의 주 당사자를 구성하는 반면, 정부군을 지원하는 외부 세력으로 레바논 헤즈볼라, 이란과 이라크에서 온 시아파 민병대,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및 러시아 용병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서방연합은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려는 다양한 반군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아사드 정부군은 반군의 점령 지역 확대를 차단하고 제압할 만큼 강하지 못하고, 반군도 전쟁의 승기를 쥌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한 상황에서,³²⁾ 외부세력들이 정부군과 반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내전은 전투를 통해 승패를 결정짓지 못한 채, 민간인 사상자와 수백만의 난민을 제물로 삼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3.1. 러시아의 개입 의도

시리아는 1950년 대 말 이후, 특히 하피즈 알-아사드(Hafez al-Assad)의 1970년 쿠데타와 이듬해 집권 이후부터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단절 없이 지속해온 유일한 아랍 국가이다. 하피즈 정권 하 시리아는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여 공산진영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범아랍민족주의와 단일 아랍사회주의

Iran,” DEFENSETECH, 2016.10.14, <http://www.defensetech.org/2016/10/14/russia-finishes-delivery-s-300-missile-systems-iran/>(검색일: 2016.10.14).

31) “US Says Russian Use of Iranian Base ‘Unfortunate’”(2016) *RFE/RL*, 2016.8.16.

32) Joshua Landis(2012) “The Syrian Uprising of 2011,” *Middle East Policy Council* 19:1, Spring.

국가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아트(Ba'ath)당의 속성은³³⁾ 소련과의 우호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데 유리한 이념적 바탕이 되었다. 1958년 집권 이후 친소 노선을 지향했던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사망한(1970년) 후 그 계승자인 사다트 대통령이 친미 노선으로 전환하자, 소련에게 중동지역에서 시리아의 지정학적 의미는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³⁴⁾

이러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연방에서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러시아가 마주한 국내외적 난관들과 소련 시기와 비교하여 약화된 국력으로 말미암아 중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존재감은 미미하였다. 1990년 대 후반 프리마코프 외교장관(이후 총리)이 러시아, 중국, 인도로 구성되는 비서방 전략 삼각형(strategic triangle)을 구성하여 유일 초강대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창하면서,³⁵⁾ 먼저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시리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2000년 대 중반 들어 모스크바가 에너지자원의 국유화와 ‘주권민주주의’ 등으로 체현된 비서방적 발전 모델을 선택하고 서방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부터이다. 푸틴 2기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증대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련 시기 우방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재개하였으며, 다마스쿠스는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간 ‘8월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함으로써 전통적 우의를 과시하였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내전 발발 이후 4년 동안 아사드 정부군에 대해 무기, 군사장비 및 기술 지원을 하면서도 직접 개입 없이 관망해 왔다.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과 ISIS 세력이 점점 더 점령지역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서도 개입을 자제하였다. 중동지역의 영향력 투사 근거지로서 시리아에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에도 직접 개입을 꺼렸던 이유는 크림병합 이후 서방과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아사드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부담스러운 선택이었다. 특히, 군대를 동원하여 비무장 시위 군중을 유혈 진압하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의 독재정권에 대해 서방은 일관되게 아사드 대통

33) 이런 연유로 바아트당은 ‘아랍사회주의부흥당(Arab Socialist Renaissance Party)’으로 불리기도 한다.

34) Florence Gaub and Nicu Popescu(2013) “Russia and Syria — The Odd Couple,”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September.

35) Andrei P. Tsygankov(2010)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2nd e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 112.

령의 퇴진을 요구해 왔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러시아가 자신의 안보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포스트소비에트지역 외부의 분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냉전의 종언 후 약 25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던 것이다.

러시아는 아사드 정부군이 반군에 밀려 전략적 요충지인 알레포에서 패퇴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던 2015년 9월 30일 공습의 형태로 전격 개입하였다. 러시아 폭격기의 지속된 공습으로 정부군의 위축 추세는 일단 중지되었으며, 몇몇 곳에서는 실지를 탈환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이 직접 개입하여 아사드 정부군 측 연합세력을 지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러시아와 이란의 직접적 개입 목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³⁶⁾ 양국은 시리아 내전에서 반군 혹은 ISIS 세력의 득세를 저지한다는 최소 목표를 공유한다. 그러나 세계전략의 고려 속에서 대외정책을 구상하고 수행하는 모스크바의 경우는 주로 지역전략의 틀 속에서 행위하는 테헤란의 경우와 달리, 군사적 개입 의도가 다양하고 복잡적이다. (아래 분석이 대외적 의도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국내적 요인의 관련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역외 군사작전의 성공을 통해 자국의 군사적 역량을 러시아인들에게 과시하려는 국내정치적 의도의 중요성도 크지만, 그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첫째, 아랍·중동지역 그리고 지중해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영향력 투사를 위한 지정학적 의도이다. 소련은 1971년 시리아와 협정을 체결하여 동지중해의 타르투스(Tartus)항을 소련 기항 함정의 물품 공급과 유지·보수를 위한 해군 시설로 오랫동안 임차해서 사용해 왔다. 현재 타르투스 기지의 공식 명칭은 ‘해군지원센터(Navy Sustainment Center)’이다.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투사할 군사적 거점으로서 타르투스항의 해군 시설을 계속

36) 이 비교 분석에 따르면, 모스크바의 시리아 개입 목표는 시아의 지파인 알라위파(the Alawite)가 주도하는 아사드 정권의 붕괴 방지 그리고 중동지역 ‘고객(client)’ 국가를 보존하는 데 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시리아아랍군(the Syrian Arab Army)의 강화와 같이 현지 군사력의 제도화를 지원함으로써 시리아 정권의 보존에 집중하고 있다. 시리아를 고객 국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아사드 대통령 자체의 보존은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본다. 반면, 이란의 개입 목표는 아사드의 통치를 지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테헤란은 아사드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에 완전히 의존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이 있기에, 이란의 지원을 받은 아사드 정권의 군사적 승리를 최종적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Ari Heistein and Vera Michlin-Shapir(2016) “The Russia-Iran Alliance is Weaker Than You Think,” *The National Interest*, 2016.4.5, pp. 2-3.

하여 유지하고자 한다.³⁷⁾ 타르투스 기지를 지정학적 근거지로 삼기 위한 모스크바의 노력은 장기적 전망을 갖고 있다. 시리아에 대한 공습 개시 약 1년 후인 2016년 10월 니콜라이 판코프(N. Pankov) 러시아 국방차관은 상원에 타르투스항의 항구적 임차를 위한 문서를 기안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³⁸⁾ 모스크바의 이러한 시도는 타르투스항을 완전한 해군기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다지는 정지작업으로 보인다. 또, 러시아는 공습을 시작한 이후, 알라위파 주민들이 다수인 시리아 북서부 연안 라타키아(Latakia) 인근 흐메이뮴(Khmeimim) 공군기지에 전력을 배치·증강하고 있다.³⁹⁾ 더 나아가, 모스크바는 이집트의 시디 바르라니(Sidi Barrani) 소재 구소련공군기지를 포함한 이집트의 군 시설물을 임차하는 문제에 관해 이집트 당국과 논의 중에 있다고 보도되었다.⁴⁰⁾ 모스크바는 반군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군의 숨통을 틔워준 공습의 대가를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확실히 챙겨 받고, 과거 나세르 시절 소련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한때 아랍 세계의 만형 역할을 했던 이집트에도 다시 영향력 투사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는 향후 타르투스항의 완전한 해군기지화와 흐메이뮴 공군기지가 지중해 지역과 중동지역에서의 나토군의 활동을 견제하고 또 ISIS 등 여타 위협 세력에 대한 신속대응능력을 발휘하는 지정학적 교두보 역할을 해 주기를 기

37) 타르투스 기지는 기항 함정에 대해 기본적인 물품 지원은 가능하나 지휘·통제 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지로부터 직접적인 작전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러시아는 2010년 타르투스 기지의 현대화를 위해 항모 접안을 위한 부두 확장, 지휘·통제 시설 구축, 함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 및 능력 개선 등을 계획하였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진척된 것은 없다.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타르투스 항은 아사드 정부군에게로 지원되는 무기와 탄약의 하역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칼리닌그라드에서 선적된 MI-24 공격용 헬기와 소형 화기들이 타르투스항에 하역되었다. 현재까지는 함정의 모항 역할보다는 모스크바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및 트랜지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Christopher Harmer(2012) “Russian Naval Base Tartus,” *Background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2012.7.31.

38) “Russia Plans Permanent Naval Base in Syria’s Tartus—official”(2016), TASS, 2016.10.10, <http://tass.com/defense/905261>(검색일: 2016.10.10).

39) “US Says Russian Use of Iranian Base ‘Unfortunate’”(2016).

40) “Egypt ‘Ready to Agree’ New Russian Air Base on Coast”(2016), *Middle East Eye*, 2016.10.10, <http://www.middleeasteye.net/news/egypt-ready-agree-new-russian-air-base-coast-reports-1845388280>(검색일: 2016.10.10).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¹⁾

둘째, 2014년 이후 대결 국면에 있는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가 자국과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안보에 관련이 있다면, 역외지역에도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근외지역뿐만 아니라 역외지역 분류에서도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과 역할이 있음을 증명하려는 의도이다.⁴²⁾ 시리아 정부군이 잃은 대부분 지역을 탈환하거나 전세를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역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군 혹은 수니계 극단 이슬람주의 ISIS 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을 막음으로써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시리아 내전, ISIS 세력의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및 중앙아시아 남부 지역으로의 확산, 유럽으로의 난민문제 등이 모두 해결 불가능함을 보여주려고 한다. 시리아 내전의 정전협정과 평화회담에 중재자로 참여함으로써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묶인 서방과 러시아간 논의 의제를 ISIS에 대한 대테러전 협력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시리아로 변경하는 의제전환효과를 의도하고 있다.⁴³⁾ 러시아 외교 엘리트들이 자주 말하는 바,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핵확산 방지와 대테러전 등 어떤 세계적 차원의 안보 문제 그리고 지역 분규도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시리아 내전에서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를 명실공이 대등한 강대국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달라는 요청을 군사력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은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의 국제 여론의 일시적 관심 전환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의제전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모스크바는 우선적으로 아사드 혹은 최소한 알라위파 정권 지속을 전제로 대테러 연합전선을 구상하는 반면⁴⁴⁾ 워싱턴은 대테러전의 성공 못지않게 정권 교체

41) 필립 브리드러브(P. Breedlove) 나토군 총사령관은 타르투스항은 나토군이 러시아와 지역 동맹국들에게 공격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서, 시리아에 대한 접근불허 및 지역차단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 Edward Delman(2015) "The Link Between Putin's Military Campaigns in Syria and Ukraine," *The Atlantic*, 2015.10.2.

42) Dmitri Trenin(2016a) "Russia and Iran: Historic Mistrust and Contemporary Partnership," *Carnegie Moscow Center*, 2016.8.18.

43) Natalia Bubnova(2015) "Efforts in Syria against ISIS Won't Bring U.S., Russia Closer Together," *Russia Direct*, 2015.9.25, p. 5.

44) Dmitri Trenin(2016b) "Russia in the Middle East: Moscow's Objective, Priorities, and Policy Drivers," *Task Force White Paper*, *Carnegie Moscow Center*, 2016.4.5, p. 5.

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러시아가 서방 주요국들과 함께 연합하여 ISIS 세력을 격퇴하고 시리아 평화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공정하게 잘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으로 인해 서방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러시아와 반군들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미래의 상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무엇보다 먼저, 주로 모스크바 측이 기대하는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the success-begets-success)’ 모델이 미-러간의 협상에서 가동되려면, 시리아의 경우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포함하여 워싱턴의 외교, 군사, 안보 영역 엘리트들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미국의 ‘상대적 이득’을 더 많이 확보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⁴⁵⁾ 애초부터 불리한 이런 흥정은 모스크바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한편의 이유는, 더욱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인데, 워싱턴은 모스크바와 핵비확산 및 대테러전 등 다른 분야의 글로벌 안보문제 협력을 우크라이나 문제와 연계하기를 거부하는 데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미 수차례 우크라이나 문제와 시리아의 ISIS 문제는 별개의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셋째, 모스크바는 중동지역에서 양대에 걸쳐 우호관계를 지속해 온 아사드 패밀리 정권을 지원하여 국가간 관계에서 (일례로,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구분되는 러시아의 신의를 과시하려고 의도하였다. 모스크바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맹국과 그 지도자를 기꺼이 지원하며, 어느 누구도 러시아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다.⁴⁶⁾ 동시에 이란과 협력하여 합동작전의 효과를 도모함으로써 양국간 전략적 협력 증진의 효과를 노렸다. 러시아의 아사드 지원은 아사드 정권 유지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테헤란을 도우는 것이며 이것은 이란과 연합하는 것이다. 혼자 힘으로 역부족인 테헤란을 자신의 공군력으로 도와 알라위파의 정권을 유지함으로써 아랍의 봄의 파고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하여 위상이 증대된 이란을 중동지역의 확고한 동반자로 삼으려는 의도이다.

넷째, 모스크바는 ‘국제보수주의’의 수호자 역할 그리고 이를 통해 대부분이 권위주의 체제인 중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안정자 역할을 부각하고자 의도하였다. 러시아는 중국,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과 함께 주권 및 영토

45) Paul J. Saunders(2016) “Why Syria Won’t Save U.S.-Russia Relations,” *The National Interest*, 2016.3.9.

46) James Miller(2016) “With Use of Iranian Base, Russia Is Trying to Send Clear Message,” *RFE/RL*, 2016.8.17.

완전성의 존중, 내정 불간섭 등 근대주권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근본원칙들의 준수에 대해 동일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으며, 국제보수주의의 대표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그 정권의 성격 여부를 떠나 국민국가의 생존이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서방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흔히 중동의 권위주의 정권들의 붕괴 후에 등장하는 것은 민주적인 정권이 아니라, 내전이나 무정부 상태 그리고 테러 세력이기 때문이다.⁴⁷⁾ 그러므로, 시리아 내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국제보수주의의 대표자로서 개입인 동시에 우방국에 대한 정권교체 시도에는 러시아가 더욱 더 강하게 반대한다는 시위이다. 이 집트와 리비아의 정권교체에 뒤이어 진행되고 있는 시리아의 정권교체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대는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선택한 비서방적 발전 모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모스크바가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등과 같은 국제보수주의의 기본 규범의 보장자로서 책임을 떠맡아 지역 질서의 안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중앙아시아 지역이며,⁴⁸⁾ 포스트소비에트지역 외부에서는 중동지역이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 지역이다. 아랍의 봄으로 확산된 민주화 시위의 결과 권위주의 정권들이 붕괴된 후, 내전 혹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새로운 독재정권 등으로 귀결되었다. 중동의 불안정 상황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보면 더 확연히 대비된다.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장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개별적 견제 노력 그리고 SCO 차원에서의 제도적 협력 등은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색깔혁명 뿐만 아니라 아랍의 봄으로 야기된 민주화 요구와 정권교체의 파도를 이겨내도록 돕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과 이전에 비해 더 악화된 중동 국가들의 국내 상황을 비교해 보면, 외세의 내정간섭과 정권교체 시도 반대라는 모스크바의 주장 그리고 국제보수주의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러시아의 지역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다섯째, 모스크바는 우선순위에서 부차적인 역외 원거리 지역에,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여 국익 수호의 ‘과도한’ 의지를 시현하였다. 이것은 러시아 안보의 최우선 지역에서 일어난 크림병합에 대해

47) Alexey Khlevnikov(2016), 8.

48) Thomas Ambrosio(2008) “Catching the ‘Shanghai Spirit’: How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romotes Authoritarian Norms in Central Asia,” *Europe-Asia Studies* 60:8, pp. 1321-1344.

국제사회의 사실상 묵인을 압박하고 또 더 나아가 돈바스 내전의 마무리 평화협상을 분리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우회적 간접전략의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러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이 아닌 2차적인 지정학적 중요성을 가진 시리아에도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데, 하물며 스스로 간주하는 고유 영향권역이며 사활적 안보 지역인 포스트소비에트지역, 특히 접경지역인 돈바스 지방에는 향후 상황에 따라 자국의 국익 수호를 위해 더 강하게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경고 효과를 노렸다. 부수적으로는, 현대화 과제를 추진해 온 러시아군의 원거리 작전 수행 역량을 과시하고, 아직 실전에서 운용해 보지 못했던 무기체계를 검증하는 효과가 있다.⁴⁹⁾ 무기체계의 실전 운용은 군사장비와 작전의 결합 효용성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실전을 거친 하이테크 군사기술의 인정은 관련 무기 수출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2. 이란의 개입 의도

이란의 대외관계에서 시리아의 의미는 러시아에게 시리아의 의미 못지않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과 시리아는 미국, 이라크 및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연합전선을 유지해 왔다. 시리아는 이란 혁명 이듬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침공해 왔을 때, 중동국가들 가운데 이란의 편에서 준 유일한 나라였다. 양자관계를 그 제휴의 성격으로 보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고자 하는 방어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은 함께,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및 여타 이슬람 지하드 세력 등의 무장 투쟁을 지원하여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에 평화를 정착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좌절시켰으며, 미국의 이라크전 전후 안정화 노력에도 가장 큰 방해 세력 역할을 해 왔다. 오랫동안 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와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는 ‘저항의 축(the axis of resistance)’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시리아와 이란의 관계는, 세속적이며 사회주의적 성향이었던 시리아 바아트당의 이데올로기와 이란의 엄격한 신정주의, 민족적으로는 아랍인과 페르시아인, 종파적으로는 알라위파와 시아파 등 여러 면에서 상호 조화되기 어

49) James Miller(2016).

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양국은 지난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적 갈등구도를 만들지 않은 채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지역에 대한 의도와 영향력 증대에 반대하고 서방적 가치 침투에 저항한다는 공통 목적이 이들의 “있을 법 하지 않는 동맹(unlikely allies)”적 제휴관계를 장기화하는 하나의 결속제 역할을 하였다. 이란과 시리아는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였으며, 장기 목표 달성에도 유리하였기에, 이들의 동거는 “괴상한 동침 파트너들(the odd bedfellows)”이라는 별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⁵⁰⁾ 그러나 반서방과 반이스라엘 이념을 넘어 양국을 결속시키는 공유 이익은 제한적이어서, 다마스쿠스는 늘 테헤란에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지 않고 적절히 편안한 거리를 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⁵¹⁾ 테헤란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다마스쿠스의 태도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변화되었다. 아사드 정권이 반군에 밀리는 형세가 지속되자, 테헤란은 아사드 정권 유지를 위해 헤즈볼라 민병대 지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란혁명수비대의 지상전 참전, 무기와 군수물자의 지원 등 전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테헤란의 자원 없이는 아사드 정권의 존속이 불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이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아사드 정권에 대한 테헤란의 전폭적 지원은 첫째, 시리아에 수니파 정권의 등장 가능성을 차단하여 지정학적 고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다. 아사드 정권이 테헤란에게 신뢰할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라서가 아니라, 새로 적대적 이웃을 두지 않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지역의 수니파 국가들은 이란의 개입을 ‘시아파 초승달(the Shia Crescent)’ 즉, 이란으로부터 이라크, 시리아 및 레바논으로 연결되는 시아파 연합을 형성하여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시아파 지원을 위한 공급선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한다. 따라서 수니파 국가들에게 이란은 중동지역의 안정을 훼손하는 주요 위협 세력이다.⁵²⁾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아사드 정권에

50) Jubin Goodarzi(2010, updated as of August 2015) “Iran and Syria,” *The Iran Prim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ttp://iranprimer.usip.org/resource/iran-and-syria>(검색일: 2016.09.25).

51) Barak Barfi(2016) “The Real Reason Why Iran Backs Syria,” *The National Interest*, 2016.1.24.

52) Alexey Khlevnikov(2016), 6.

대한 지원이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세라기보다는 방어적인 것이다. 아사드 정권의 붕괴에 뒤이어 이란에 적대적인 수니 정권이 등장하고 이 정권이 이란과 라이벌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⁵³⁾ 내전 직전 시리아의 수니파 인구는 70%를 상회하였기에⁵⁴⁾ 이것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테헤란의 아사드 정권 지원은 알라위파가 시아파의 한 지류라는 종파적 동질성보다는 인근국에 적대적 수니파 정권의 등장을 막으려는 테헤란의 지정학적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두 종파의 교리와 의례의 차이가 크고 역사적으로는 적대적이어서 양국을 묶어주는 종교적 유대는 강하지 않다. 이란은 ‘열두 이맘파(Twelvers)’로 알려진 시아파이며, 시리아의 집권층은 알라위 시아파로서 양국이 모두 시아파이지만, 두 나라를 묶어주는 종교적 결속력이 있기는커녕 도리어 이질감과 상호 배타성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다. 열두 이맘파는 알라위파를 이단이자 적으로 간주하여, 1834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알라위들의 반란을 진압할 때 이를 돕기 위해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였다.⁵⁵⁾ 알라위파 역시 맞대응으로 자신들이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의 습득자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을 추종하지 않는 무슬림들에게는 어떠한 형제애도 가지지 않았다.

둘째, 테헤란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유지를 통해, 접경하고 있는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을 지원하고 안정화하고자 한다. 내전으로 취약해진 아사드 정권이 테헤란의 지역 영향력 확장을 위한 자산이기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상황에서 이라크 시아파 정권의 유지와 우호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테헤란도 시리아도 바그다드에 적대적 수니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이라크가 내전 상태나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53) David Patrikarakos(2016) “Iran’s Great Game,” *RFE/RL*, 2016.9.2.

54) 시리아의 종교 종파별 인구구성 비율은 수니 무슬림 74-75%, 알라위 8-11%, 기독교인 8-10%, 쿠르드족 6-8%, 드루제(Druze) 3%, 알라위나 이스마일리가 아닌 시아 무슬림 1-2% 등이다. Bassam Haddad(2012) “Syria’s Stalemate: The Limits of Regime Resilience,” *Middle East Policy Council* 19:1, Spring, note 1.

55) 9세기에 알라위파의 개창자는 ‘열두 이맘파’의 종교지도자들 가운데 11번째 이맘의 추종자였다. 그런데 알라위파는 라마단월의 금식 등 이슬람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무함마드의 사촌 알리(Ali)를 신격화하고 영혼 환생을 옹호하는 등 비이슬람적 신념을 전파하였다. 이에 대해 열두 이맘파의 학자들은 알라위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무슬림에게 금지된 것들을 허용하는 알라위들을 저주하였다(Barak Barfi 2016).

라크가 ‘실패 국가’로 고착되어 ISIS와 같은 테러 집단의 근거지가 되고 글로벌 지하디스트 양성장이 된다면, 이슬람 극단주의는 시리아 내부로 더 깊이 침투하여 이란의 고립을 심화하고 또 이라크를 거쳐 시리아 타르투스 항으로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⁵⁶⁾ 같은 경제활동에도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셋째, 중동지역에서 테헤란이 아사드 정권과 30년 이상 형성해 온 ‘저항의 축’을 유지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경쟁자인 수니파 맹주 사우디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고자 한다. 로우하니 대통령의 적극적인 서방 접근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프로그램 합의 이후 테헤란은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핵 합의 이전에 존재했던 UN 안보리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테헤란의 의구심은 작지 않다.⁵⁷⁾ 반면에, 벤 로즈(Ben Rhodes)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핵 합의 이후, 협정의 요구사항은 완전히 이행되고 있으나 그 이외 문제에 대한 테헤란의 대외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⁵⁸⁾ 워싱턴의 매파 진영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신정정치를 고수하는 이란은 실용적 관점에서 국익을 계산하는 통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혁명적 정권이기에, 애초부터 어떤 화해도 파트너십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⁵⁹⁾ 그러나 테헤란 역시 서방과 좋은 관계를 만들 목적으로 오랜 친구를 버리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는 없다.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서방 화해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갈등적 경쟁구도 없이 이끌어 온 우호국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만은 “길의 끝에 이르도록(until the end of the road)” 아사드 정권을 지원할 것임을 선언(2015년 6월)하였다.⁶⁰⁾

56) Ari Heistein and Vera Michlin-Shapir(2016), 4-5.

57) “Ryabkov Says US Sanctions Continue to Hinder Iran After Nuclear Deal”(2016), *RFE/RL*, 2016.9.1.

58) Michael Wilner(2016) “Iran’s Foreign Policy ‘Has Not Changed’ Since Nuclear Deal, Rhodes Says,” *The Jerusalem Post*, 2016.6.17.

59) Eliot Cohen, Eric Edelman, and Ray Takeyh(2016) “Time to Get Tough on Tehran: Iran Policy After the Deal,”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60) Louise Loveluck(2015) “Iran Promises to Back Assad ‘Until the End of the Road,’”

4. 양국관계의 진로에 대한 시사점

앞 장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의 시리아 내전 개입 의도에 대해 세계정치 및 지역정치, 양자관계, 각국의 안보 등 다차원적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지정학적 군사적 협력의 의도가 향후 양국관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양국의 제휴관계가 더욱 긴밀화될 것인가. 아니면 편의에 따른 일시적 협력에 그칠 것인가, 즉, 러시아는 과거처럼 서방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혹은 우호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과거처럼 이란과의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폐기하여 관계 냉각을 감수할 것인가.

먼저, 양국이 추구하는 지정학적 목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 자신이 희망하는 다극적 세계질서에서 하나의 세력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인정받는 것이 대외정책의 중장기적 목표이다.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외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 전력 투사가 가능한 글로벌 행위자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모스크바는 유라시아지역과 연계된 지역들에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파트너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인도, 파키스탄, 터키 및 이란 등과의 다자 및 양자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러시아는 아랍의 봄의 여파로 분규와 불안정을 노정하고 있는 중동 지역을 자신의 글로벌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할 무대로 선택하였다. 여기에 전통적 고객 국가 시리아가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이란이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 투사의 근거지로서 시리아가 필요하며, 영향력 행사를 위한 강력한 지렛대로서 이란이 필요하다. 자신의 영향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미국의 역할 및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데서 이란의 핵심적인 우방 역할을 기대한다. 모스크바는 이란과의 결속을 제도적 틀 속에서 더 강화하기 위해 이란의 SCO 가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이란과의 FTA 체결을 환영하고 있다. 또 양국간 산업협력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 이란에 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다.⁶¹⁾ 이란 역시 러시아의 힘이 필요하다. 이란은 중동지

The Telegraph, 2015.6.2.

61) "Putin Encourages Iran to Join Russia-led Eurasian Alliance"(2016), *RT*, 2016.8.5,

역에서 시아파의 맹주로서 다수가 수니파인 아랍 중동 세계에서 소수파의 지위에 있다. 중동지역에서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세력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부분의 걸프연안 국가들이 미국과 제휴하고 있기에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비서방 역외 세력으로서 러시아와의 제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권위주의 체제로서 모두 서방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의 침투를 차단하려 하고, 보호의 책임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구실로 한 내정 간섭과 정권 교체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도 시각과 접근법은 일치한다. 반면에 이란의 국가·국민 정체성은 이슬람 신정국가체제로서 세속적 국가주의 성격이 지배적인 러시아와도 구분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엄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입각한 서방국가들과의 이질성이 더 크다. 신정국가체제가 유지되면서 이란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가 심화되어 우방국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양국의 지정학적 필요 및 가치의 친화성에 기초하여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과의 군사적 협력에서처럼, 러시아는 중동지역 영향력 확장을 위해 이란을 비롯한 시리아⁶²⁾, 이라크, 레바논 헤즈볼라 등 시아파 세력과 더 긴밀히 제휴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와 시아파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대 시아 무슬림 국가인 이란과의 관계는 더 큰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스크바가 미국과 제휴한 사우디, 이집트, 터키, 카타르 및 바레인(지도부만 수니파) 등 수니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아파와 제휴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⁶³⁾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먼저, 러시아는 세계정치의 범주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글로벌 행위자이지만, 미국과 대등한 능력과 광범위한 지역적 이해관계를 가진 초강대국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러시아 대외정책의 목표는 유라시아지역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인정받는 것이며, 우선적 관심과 사활적 이해관계 역시 이 포스트소비에트지역으로 국한된다. 현재 모스크바에게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 제1의적 중요성에 비하면, 중동지역은 부차적인 지역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리아 내전 개입은 중동지역

<https://www.rt.com/politics/354743-putin-voices-support-to-iran/>(검색일: 2016.09.25).

62) 아사드 정권에서 시리아의 지배층은 시아의 지파인 알라위파이며 반군 측은 주로 수니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63) Michael Rubin(2016), 12.

에서 타르투스항과 같은 지정학적 교두보를 확고히 하며 이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지역 정치에서 서방에 대한 영향력의 지렛대를 갖기 위한 것이다. 더 깊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포스트소비에트지역 문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압박 효과 및 협상 카드를 노리는 간접전략의 차원도 있다. 2008년 조지아 전쟁, 2011년 이후 아랍의 봄의 여파 진행, 2012년 푸틴 집권3기 시작 및 2014년 이후 대러 경제제재의 지속 등을 거치며 서방과 러시아간 대결 국면이 공고화되면서, 모스크바는 가능한 한, 더 많은 우방과 영향력 투사의 거점, 협상의 지렛대가 필요해진 것이다. 간단히 말해, 크림병합의 사실상 묵인과 돈바스 내전의 유리한 종결,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북코카서스 지역에 대한 급진 이슬람 세력 침투 차단 등 러시아 자국의 안보, 그리고 중앙아시아지역으로의 급진 이슬람주의의 확산 차단 등 포스트소비에트공간의 안보가 우선이지 부차적인 중동 지역의 러시아 영향력 확장이 핵심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진을 위해 수니와 시아간 분쟁과 갈등을 이용하기는 하겠지만, 이 종파간 대결 구도에 결코 깊게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다.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모스크바가 오랜 고민 끝에 개입하면서도, 지상군이 아닌 공습을 택한 것에서도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아프가니스탄의 수렁과는 달리 아직도 한 발만 들이민 상태이다. 대립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서서는 종파를 막론하고 중동 지역의 모든 무슬림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운신의 여지를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또, 자국의 핵심적 국가이익과 직접 연관이 없는 종파간 분쟁에 개입되어 제한된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신정국가 이란과의 완전한 동맹형성 가능성은 더욱 낮다. 알리 벨라야티(Ali Velayati) 이란 최고 지도자의 대외정책 고문이자 전 외교장관이, 모스크바 방문 직후인 2016년 2월, 러시아, 이란, 시리아 및 헤즈볼라 간 동맹형성의 전제조건들이 있다고 언급하자, 러시아 외교부 관리가 즉각 그런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던 바 있다.⁶⁴⁾ 러시아는 이란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미국과 EU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지역 다른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⁶⁵⁾

64) Mark N. Katz(2016) "Russian-Iranian Relations: Troubled Ties," *LobeLog Foreign Policy*, 2016.3.14, <https://lobelog.com/russian-iranian-relations-troubled-ties/>(검색일: 2016.09.10).

이란도 러시아도 현재의 긴밀한 양자관계를 동맹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자국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운신의 여지를 대폭 축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테헤란은 중동이라는 지역 전략 및 EU와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지역들에 다기하고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이를 글로벌 전략의 틀 속에서 사고하기에 양자간에는 전략적 사고의 층위에서 차이가 크다. 러시아의 개입 의도에서 분석한 바대로, 모스크바는 접경한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 안보와 국익,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의 유리한 해결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지역에서 ‘동맹의 의무’로 인한 군사력의 오우버스트레칭 부담을 감수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시아파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과 동맹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물론, 여타 시아파 국가들과의 연합적 제휴관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제휴관계가 러시아의 서방 관계의 변화에 따라 쉽게 냉각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냉각을 넘어 대결적 국면을 지속하는 것은 양자간의 일회적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나토와 EU의 지속적 동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모스크바의 독자적 발전모델 및 비서방적 정체성 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냉전 후 유럽 질서의 재편성에서 상이한 안보 구도(나토 중심 vs. 새로운 통합적 협력안보 체제) 및 상이한 유럽통합의 비전(Wider Europe vs. Greater Europe) 간에 진행되어 온 장기간의 근원적 갈등의 결과이다.⁶⁵⁾ EU와 나토로 다가서려는 키에프의 결정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과 돈바스 내전 개입은 헬싱키협정 이래 발전되어 온 유럽 안보 규범에 대한 도전이기에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모스크바가 돈바스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크림의 운명은 크림 주민들이 국제감시인단의 참관 하에 자유롭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을 수용하는 것은 모스크바에게는 서방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65) Gareth Smyth(2016) “The Tricky Triangle of Iran, Russia and Israel,” *The Guardian*, 2016.4.25.

66) Richard Sakwa(2015) *Frontline Ukraine: Crisis in the Borderlands*, London: I. B. Tauris, pp. 26-49.

서방,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쉽게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푸틴주의가 에너지국유화 등 국가주도 경제운영 방식, 주권민주주의, 국제보수주의 등 독자적 발전모델을 추구하면서 비/반서방적 정체성의 대표자, 옹호자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민족(국민)의 역사적 기억, 가치 및 정체성에 연관된 것이기에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와 이란의 제휴관계는 과거의 사례들처럼 러시아와 서방관계의 단기적 기복에 조응할 가능성이 낮다.

다른 한편으로, 양자 관계 심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시리아 내전의 해결을 위한 평화협상을 논의하면서부터 러시아와 이란 간 분열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모스크바와 테헤란은 시리아에 대한 개입의 목표 자체부터가 다르기에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 들어가면, 양국은 서로 입장이 달라 갈등하기 시작할 것이며 파트너십의 취약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측이다.⁶⁷⁾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양국의 세력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러시아가 직면한 전략적 난국 즉, 서방으로부터 소외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불편하며, 새로운 동반자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처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⁶⁸⁾ 시리아 내전 협력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최대 목표는 다르더라도 시리아에 수니 정권 배제라는 최소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리아 내전의 동결 혹은 종결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중동지역에서 외교적 독립성과 체제 안정성이 검증된 의지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가 필요하며, 이란은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역외 동반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 해결의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모스크바와 테헤란의 전략적 제휴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큰 파괴효과를 갖지는 못할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진 러시아와 이란간의 다각적 관계 강화가 필요와 편의에 따른 일시적 협력에 머물 것인지, 전략적 제휴관계로 지

67) Ari Heistein and Vera Michlin-Shapir(2016), 3.

68) Matt Finucane(2016a), 3.

속되어 나갈 것인지를 시리아 내전에 양국이 직접 개입하게 된 의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모스크바는 중동지역과 지중해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 투사를 위해 시리아에 군사적 거점을 유지·확대하려고 하며, 대결 국면의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는 중동과 같은 역외지역에도 개입할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유라시아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과 역할을 증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테러전에 서방과 함께 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의 대결 구도로부터 반 ISIS 협력전선 구축으로 의제전환 효과를 의도한다.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여 전통적 우호국에 대한 러시아의 신의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 테헤란을 간접 지원함으로써 이란을 중동지역의 안정성 있는 파트너로 확보하고자 한다. 아랍의 봄 이후 정권교체의 위협에 노출된 중동지역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국제보수주의의 대표자로 자임한 러시아의 안정자 역할을 부각하려고 의도하였다. 역외 분쟁 지역에 직접 개입하는 공세적 국익 수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리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우회적 간접전략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군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외세인 테헤란의 군사적 개입은 아사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등장하게 될 수니파 정권을 사전 차단하여 자국의 지정학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안보적 방어 의도가 우선적이다. 더 나아가 아사드 정권의 유지를 통해 접경한 이라크의 시아파 정권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호메이니 사후부터 지속해 온 미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헤란이 아사드 정권과 함께 장기간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해 온 저항의 축을 유지하고,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모스크바는 아사드의 시리아를 지정학적 거점으로 남겨두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 지정학적 교두보를 유지해야만 포스트소비에트 이외 지역에서 서방에 대한 영향력 지렛대를 가지게 되며, 이 지렛대는 포스트소비에트지역의 안보와 관련하여 서방과 협상할 때에 간접전략의 구사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란 역시 시리아에서 최소한 알라위파 정권을 존속시켜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축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있다. 양국은 이 공동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제휴하였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먼저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지전략적 계산 및 각국이 아사드의 시리아에 대해 갖는 지정학적 이익이 대체로 부합하고, 다음으로 추구하는 가치(권위주의 및 국제규범에 대한 보수주의) 및 비서방적 정체성 등에서 대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논거에서 본고는 과거의 사례처럼 러시아의 대 서방 관계의 개선 혹은 개선 의도에 따라 러-이란 양국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러시아와 이란간의 긴밀한 협력은 일시적인 편의에 따른 파트너십보다는 좀 더 긴 시간에 걸쳐 전략적 제휴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고 해도 모스크바는 이란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란을 축으로 하는 중동지역의 시아파 세력과 전략적 연대를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연대는 글로벌·지역 정치에서 서방과의 관계 및 중동지역 비시아파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운신의 여지를 제약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리아 내전이 동결 혹은 종결되더라도 모스크바는 이란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모스크바가 희망하는 다중심적 세계질서 속에서 푸틴주의로 표현되는 비서방적 발전모델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라시아지역의 강대국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한,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와 직접 연관되는 중동지역에서 대외적 독립성을 유지해 온 이란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상두(2015)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과 평화적 해결의 전망」, JPI정책포럼, No. 2015-23, 제주평화연구원, 1-12쪽.
- 김성진(2013) 「시리아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정책: 국내외 요인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6:4,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65-188쪽.
- 장병옥(2006) 『이란 외교정책론: 이슬람에서 핵무장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상률(2014)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을 둘러싼 중동 국제관계 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4:2, 한국이슬람학회, 237-275쪽.
- Akbarzadeh, Shahram(2015) “Iran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Ideology and Realpolitik in Iranian Foreign Polic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9:1, pp. 88-103.
- Aleksashenko, Sergey(2015) “Russia and Iran: Past Is not Necessarily Prologue,” Brookings Institution, 2015.9.19.
- Ambrosio, Thomas(2008) “Catching the ‘Shanghai Spirit’: How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Promotes Authoritarian Norms in Central Asia,” *Europe-Asia Studies* 60:8, pp. 1321-1344.
- Aris, Stephen and Aglaya Snetkov(2013) “Global Alternative, Regional Stability and Common Cause: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est,”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4:2, pp. 202-226.
- Barfi, Barak(2016) “The Real Reason Why Iran Backs Syria,” *The National Interest*, 2016.1.24.
- Bubnova, Natalia(2015) “Efforts in Syria against ISIS Won’t Bring U.S., Russia Closer Together,” *Russia Direct*, 2015.9.25.
- Cohen, Eliot, Eric Edelman, and Ray Takeyh(2016) “Time to Get Tough on Tehran: Iran Policy After the Deal,”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 Delman, Edward(2015) “The Link Between Putin’s Military Campaigns in Syria and Ukraine,” *The Atlantic*, 2015.10.2.
- “Egypt ‘Ready to Agree’ New Russian Air Base on Coast”(2016), *Middle*

- East Eye*, 2016.10.10, <http://www.middleeasteye.net/news/egypt-ready-agree-new-russian-air-base-coast-reports-1845388280>(검색일: 2016.10.10).
- Finucane, Matt(2016a) “The Beginning of a Russian-Iranian Alliance,” *Russia Direct*, 2016.7.19.
- _____ (2016b) “The Hamadan Incident: Russian Airstrikes from Iran, Now up in the Air,” *Russia Direct*, 2016.8.26.
- “Friends by Default”(2001), *The Economist*, 2001.3.10.
- Goodarzi, Jubin(2010, updated as of August 2015) “Iran and Syria,” *The Iran Prim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ttp://iranprimer.usip.org/resource/iran-and-syria>(검색일: 2016.09.25).
- Haddad, Bassam(2012) “Syria’s Stalemate: The Limits of Regime Resilience,” *Middle East Policy Council* 19:1, Spring, pp. 85-95.
- Harmer, Christopher(2012) “Russian Naval Base Tartus,” *Backgrounder*,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2012.7.31.
- Heistein, Ari and Vera Michlin-Shapir(2016) “The Russia-Iran Alliance is Weaker Than You Think,” *The National Interest*, 2016.4.5.
- “Iran Says Russia Only Using Air Base for Refueling”(2016), *RFE/RL*, 2016.8.18.
- “Iran Starts Construction on Second Nuclear Plant with Russian Help”(2016), *RFE/RL*, 2016.9.10.
- “Iran, Russia to Start Building Two New Nuclear Power Plants”(2016), *RFE/RL*, 2016.9.2.
- Katz, Mark N.(2010, updated as of August 2015) “Iran and Russia,” *The Iran Primer*,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http://iranprimer.usip.org/resource/iran-and-russia>(검색일: 2016.09.25).
- _____ (2016) “Russian-Iranian Relations: Troubled Ties,” *LobeLog Foreign Policy*, 2016.3.14, <https://lobelog.com/russian-iranian-relations-troubled-ties/>(검색일: 2016.09.10).
- Khlevnikov, Alexey(2016) “What Iran Thinks about Russia’s Role in the Middle East,” *Russia Direct*, 2016.5.6.
- Kimball, Daril G. and Kelsey Davenport(2015) “P5+1 Nations and Iran Reach Historic Nuclear Deal,” Arms Control Association, 2015.7.14.

- Kozhanov, Nikolay(2015) “Understanding the Revitalization of Russian-Iranian Relations,” Carnegie Moscow Center.
- _____ (2016) “Marriage of Convenience,” *Russia in Global Affairs*, 2016.6.17.
- Kreutz, Andrej(2010) “Syria: Russia’s Best Asset in the Middle East,” *Russie.Nei.Visions* 55, Russia/NIS Center, November.
- Loveluck, Louise(2015) “Iran Promises to Back Assad ‘Until the End of the Road’,” *The Telegraph*, 2015.6.2.
- McGarry, Brendan(2016) “Russia Finishes Delivery of S-300 Missile System to Iran,” DEFENSETECH, 2016.10.14, <http://www.defensetech.org/2016/10/14/russia-finishes-delivery-s-300-missile-systems-iran/>(검색일: 2016.10.14).
- Mead, Walter R.(2014) “The Return of Geopolitics: The Revenge of the Revisionist Powers,” *Foreign Affairs*, May/June.
- Miller, James(2016) “With Use of Iranian Base, Russia Is Trying to Send Clear Message,” *RFE/RL*, 2016.8.17.
- Monshipouri, Mahmood and Manochehr Dorraj(2013) “Iran’s Foreign Policy: A Shifting Strategic Landscape,” *Middle East Policy Council* 20:4, pp. 133-147.
- Omelicheva, Mariya Y.(2012) “Russia’s Foreign Policy toward Iran: A Critical Geopolitics Perspective,” *Journal of Balkan and Near Eastern Studies* 14:3, pp. 331-344.
- Patrikarakos, David(2016) “Iran’s Great Game,” *RFE/RL*, 2016.9.2.
- “Putin Encourages Iran to Join Russia-led Eurasian Alliance”(2016), *RT*, 2016.8.5, <https://www.rt.com/politics/354743-putin-voices-support-to-iran/>(검색일: 2016.09.25).
- Rubin, Michael(2016) “Iran-Russia Relations,” Operational Environment Watch, AEI, 2016.7.1.
- “Russia Plans Permanent Naval Base in Syria’s Tartus—Official”(2016), *TASS*, 2016.10.10, <http://tass.com/defense/905261>(검색일: 2016.10.10).
- “Ryabkov Says US Sanctions Continue to Hinder Iran After Nuclear Deal”(2016), *RFE/RL*, 2016.9.1.
- Sabet, Farzan(2016) “The Rouhani Presidency at Three,” Sada, Carnegie

-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6.8.18.
- Sakwa, Richard(2015) *Frontline Ukraine: Crisis in the Borderlands*, London: I. B. Tauris.
- Saunders, Paul J.(2016) “Why Syria Won’t Save U.S.-Russia Relations,” *The National Interest*, 2016.3.9.
- Shanahan, Rodger(2015) “Iranian Foreign Policy under Rouhani,” Analysis, Lowy Institute, February.
- “Shanghai Group Declines Russian Bid to Enlist Iran”(2016), *RFE/RL*, 2016.6.24.
- Sharafedin, Bozorgmehr and Lidia Kelly(2016) “Iran and Russia Move Closer but Their Alliance Has Limits,” *Reuters*, 2016.4.26.
- Smyth, Gareth(2016) “The Tricky Triangle of Iran, Russia and Israel,” *The Guardian*, 2016.4.25.
- Tarock, Adam(2002) “The Struggle for Reform in Iran,” *New Political Science* 24:3, pp. 449-468.
- Trenin, Dmitri(2016a) “Russia and Iran: Historic Mistrust and Contemporary Partnership,” Carnegie Moscow Center, 2016.8.18.
- _____ (2016b) “Russia in the Middle East: Moscow’s Objective, Priorities, and Policy Drivers,” Task Force White Paper, Carnegie Moscow Center, 2016.4.5.
- Tsygankov, Andrei P.(2010) *Russia’s Foreign Policy: Change and Continuity in National Identity*, 2nd e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US Says Russian Use of Iranian Base ‘Unfortunate’”(2016), *RFE/RL*, 2016.8.16.
- Wilner, Michael(2016) “Iran’s Foreign Policy ‘Has Not Changed’ Since Nuclear Deal, Rhodes Says,” *The Jerusalem Post*, 2016.6.17.

Abstract**Russia's Strategic Alignment with Iran?: Focusing on the Intentions of Intervention in Syrian Civil War****Kang, Bong-koo***

Most of the studies on the closer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Iran in Syrian civil war have argued that it is “a temporary partnership or a cooperation of necessity” and “limited and situational.” Studies standing on the opposite side have criticized that the prevailing interpretations have ignored the two countries’ shared geopolitical interest in the Middle East including Syrian affairs, a conservative position on modern international norms, and complementary economic ties between themselves. On the analyses of Moscow’s and Tehran’s intentions in military intervention in Syrian civil war, this paper argues that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experiences, Russia-Iran relations are unlikely to worsen in line with Moscow’s improvement or intention of improvement in relations with the West, and expects the strategic alignment of Russia and Iran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foreseeable future. The main driving forces are that two nations’ geo-strategic calculations in global and regional politics and particularly their geopolitical interest on al-Assad’s regime in Syria have been similar, and they have mostly shared values(authoritarianism and the conservative perspective on the main interstate norms) and non-Western identity.

Key words: Russia, Iran, Syrian Civil War, Assad’s Regime, Strategic Alignment, Strategic Cooperation

* HK professor at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강 봉 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러시아학술원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원(IMEMO)’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현대러시아 대외정책의 형성』 외에 다수 논문을 출간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우크라이나 위기와 미국-러시아 관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EU: 정체성 대립의 새로운 전선」, 「강대국으로의 복귀?: 푸틴 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2000~2014)」 등이 있다. 그의 연구 관심 분야는 러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의 외교 안보 정책,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대유라시아 주요 국가들 간의 국제 및 지역 정치 등이다.

Kang, Bong-koo

HK professor at the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He received Ph.D. at Institute of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MEMO, RAS). He is the author of a book and numerous journal articles and book chapters, including *Formation of Contemporary Russian Foreign Policy*, “Ukraine Crisis and the U.S-Russia Relations,” “EAEU and EU: The New Front Line of Identity Confrontation,” “Return to ‘a Great Power?: Russian Foreign Policy in Putin’s Era (2000~2014).” His research interests have focused on the issues of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Russia and Eurasian states,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litics among greater Eurasian major powers.

논문심사일정

| | |
|--------|----------------------------|
| 논문투고일: | 2016. 10. 11 |
| 논문심사일: | 2016. 10. 25 ~ 2016. 11. 7 |
| 심사완료일: | 2016. 11. 8 |